

대한양계협회 소식

지난 10월 7일(화) 오후 2시본 회의실에서 전국 육계분과 생산자 대표 및 회원 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분과 정화 결기대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이철우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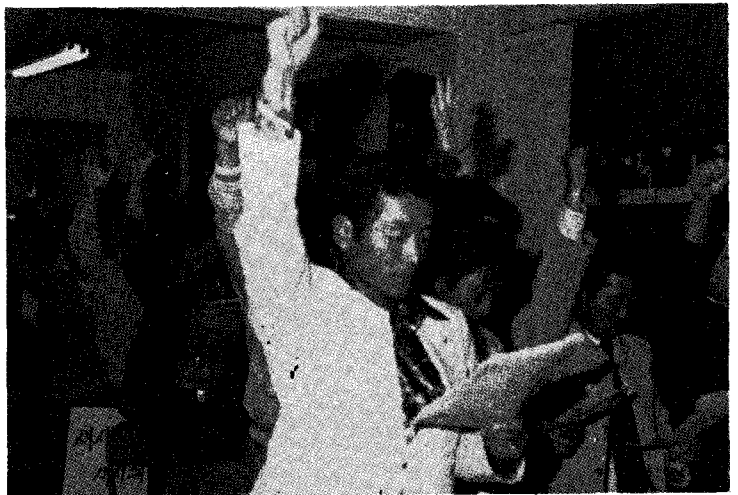
육계업에 종사하는 육계 생산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육계 생산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업계의 모순을 제거하고 생산비 인하 노력을 하여야만이 생존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생산조절과 아울러 특히 투기적인 대규모



(류중래 본회회장)



(이철우 육계분과위원장)



△ 육계분과의 정화결기대회는 새 시대 새 질서의 업계를 위해 단합할 것을 결의했다

모 육계 경영을 하지 말자고 역설했다.

또한 격려사에서 본회 유종래 회장은 양계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사료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제하고 일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전전한 사업 정신과 업계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단결하고 슬기를 모아 난국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백 명 기)



(신 정 일)

정화 대회가 끝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감습회가 열렸는데 첫번째 강사로 나온 백명기 위원(김포, 혜원농장)은 자신의 경영 분석을 제시하고 철저한 사양 관리에 의한 사료효율 개선으로 손익분기점이 낮아지므로서 나쁜 시세 조건하에서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투기적인 대량 사육은 업계전체는 물론 부실한 사양관리도 인한 생산성의 저하로 생산자 자신에게도 크게 불리함을 지적했다.

특히 곡시톱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발병 증세없이 잠재해 있으면서 발육이 저조한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청결한 환경 위생으로 이의 예방을 강조했다.

이어서 신정일 위원(유일농원)은 합리적인 육계 경영을 위해 경영 목표를 일단

- 1) 사료효율 2.5이하
- 2) 출하율 100%
- 3) 2kg 출하일령 55일
- 4) 노랗게 착색된 우량 상품을 목표로 정하고 꾸준히 사양관리 개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중요한 마음 가짐의 첫단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① 병아리 도착 직후와 최초 육추 2주간의 기간이 성공적인 관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② 약품보다 청결한 환경위생 유지에 중점을 두고

③ 환기는 생각이상으로 중요하며

④ 다리의 착색이 불량한 것은 어딘가 관리가 잘못 된 것이며

⑤ 부부가 손수 경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⑥ 계사내 바닥은 비닐을 깔고 흙을 덮어 습기와 질병 오염을 막는 계사구조 개선

⑦ 연중 2개월간 입추중지 계획 수립

⑧ 육계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철저한 직업의식

⑨ 이러한 상황의 실제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14일(화)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 생산자대표 및 회원이 참석하여 채란분과 정화절기 대회가 개최 되었다.

정화대회가 끝난 후 분과위원을 개선하여 위원장에 민덕기씨가 선출 되었다. 분과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 원 장 : 민 덕기
 부위원장 : 김 광옥(동두천 분회장)
 박 옥용(전북지부)
 김 태환(전남지부)

- 박 규병(경북지부)
 송 유제(부산·경남지부)
 위 원 : 박 선안(안성 분회장)
 박 태서(안양분회)
 김 철환(전북지부)
 장 재결(전남지부)
 우 원현(부산·경남지부)
 박 수곤(경북지부)

채란 및 육계분과 정화대회에서 채택, 결의된 결의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一. 우리는 무절제한 생산을 자제하고 생산 조절에 앞장 선다.
- 一. 우리는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비 절감 노력을 최대한 경주 한다.
- 一. 우리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판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고 안정된



△ 생산조절과 생산비 절감에 가일층 노력하여 안정된 업계를 위해 노력을 다짐하는 채란분과 정화대회



(민덕기 채란분과위원장)



(결의문을 낭독하는 안명수 전남지부 총무)

이어서 산란계 강제 환우에 대한 사례 발표회가 열렸는데 민덕기 위원장은 자신의 강제 환우 방식을 소개 하면서 시세 하락과 생산 비양동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강제 환우 임을 강조 했다. 또한 김철환(전북) 위원의 발표 및 질의 응답과 채란 업계의 제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가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一. 우리는 거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불량 추 및 저질 사료를 구입하지 않는다.
- 一. 우리는 질병 예방에 전력하여 우리 모두의 피해를 축소 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 一. 우리는 지역 생산자 끼리 단결하며 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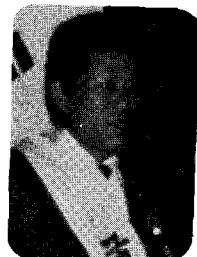
부산·경남지역 양계인 정화 추진 대회 개최

— 10월 19, 20일 지역 양계인 단결을 과시 —

본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김중경)는 새 시대의 새역사 창조를 향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코저 지부산하 전양계인이 모인 가운데 지난 10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 경남 양산군 웅상면 덕계국민학교와 김해 태양 예식장에서 부산·경남지역 양계인 정화 추진대회 및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계몽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비약적인 성장으로 양적 팽대를 이룬 양계업계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발생 어려움에 봉착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여려가지 난관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

이에 부산·경남지역 전 양계인은 먼저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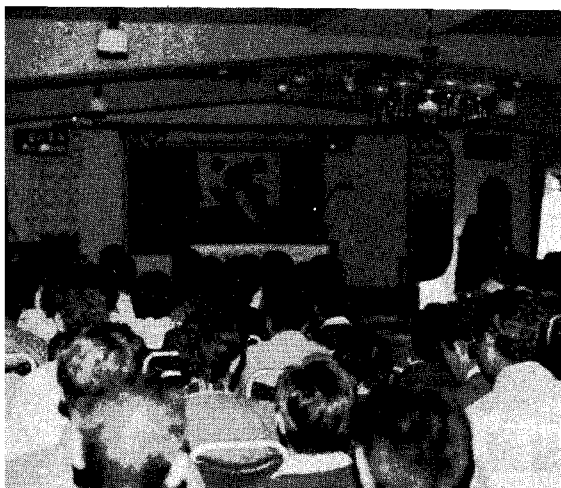


(김중경 경남지부장) (권순영 경남도 축정과장)

히하게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 가까운 데서 손쉬운 일 부터 스스로 찾아내어 개선한다.

모두의 힘과 슬기를 합하여 모든 시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 국가 전체가 새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 하고자 정진하고 있는 이때 건전한 풍토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 양계인들은 무계획적인 입추를 자제 생산조절에 앞장 서고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비 노력에 정진하고,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판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서 탈피 안정된 가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거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불량추와 저질 사료를 배척한다. 질병예방에 전력하여 피해를 축소시키고 지역 생산자의 단결 협동을 생활화 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 하였다.

대회에는 경상남도 축정과 권순영 과장 등 연인원 200여명이 모인 대성황속에 개최되어 부산·경남지역의 양계인의 단결을 과시 하였다.



△경남도지역 양계인의 총화단결로 새로운 업계 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는 부산·경남지역 양계인 정화추진대회 광경

제5차 부화분과 위원회 개최

지난 10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금년도 제5차 부화분과 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는 진지한 토의 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의하고 각종계장, 부화장에 통보 하였다.

초생추 가격 협정문제에 있어 가격 안정대를 육계 실용계는 200원에서 300원사이, 산란실용계는 300원에서 400원 사이로 결정 하였다

또한 각종 계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계를 10월 15일 까지 완전히 등록하며 PS 및 C.C의 초생추 생산 보고를 철저히 이행 하도록 하였다. 상기 사항의 위반농장에 대하여는 1차 경고 및 지상공개하고 2차 시정이 안되면 본회 정화위원회 명의로 관계 당국에 건의 또



△ 부화분과위원회 정경

는 고발조치 하도록 결정 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사항은 개인의 이해를 떠나서 전체 업계의 발전과 만성적인 생산과잉에 의한 가격폭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 양계인이 일치단결 합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감별사 단합대회 개최

— 10월 18일, 여주에서 —



(조성철 감별분과위원장)

본회 감별분과(위원장 : 조성철)에서는 지난 10월 18일 경기도 여주에서 감별사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감별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하였는데 감별사 해외파견 증진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감별사의 단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감별사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떠나 굳게 단합할 것을 결의 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 능력있는 감별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의 빈곤, 해외파견사업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해외 취업의 기회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감별사 자격시험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